

일로일로 소식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교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물 사역

<모스트로>



<소호톤>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는 건기에 물부족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4-6월이면 물이 말라서 2-30분씩 걸어서 물을 길

어와야 하는데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지난 2개월간 모스트로와 소호톤지역에 우물을 뚫았습니다. 이제 물걱정 없다며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이네요.

아웃리치



까와야난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며칠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인력거를 몰며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라 자

녀를 전혀 돌보지 못하여 작년부터 이 지역에서 매주 급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5월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의 제니 라는 자매님은 급식을 위해 자기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시작할 때만 해도 신앙이 거의 없던 분인데 이 사역을 함께하며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지난 4월에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다섯 교회의 청소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REVAMP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아이들이 초신자인 친구들을 생각보다 많이 초청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특히 마지막 날 밤에는 Renewed



Lif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 후에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로 닫힌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호톤 지역의 11명의 아이들은 수련회 후 주일예배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저희 일로일로 교회, 파비아 교회, 오톤 교회, 모스트로 교회, 소호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일로일로 센터교회 성전건축이 드디어 6월부터 시작됩니다. 엔지니어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그리고 완공될 때까지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저희 부부와 연제, 준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로일로에서 장원전 지승희 선교사 드림